2021년 7월 개원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186호 (음력 6월 17일)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안산X장민희X강채영, 올림픽 9연패 성공기념 세리머니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안산과 장민희 강채영이 25일 오후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단체전 우승, 시상대에 오르며 양궁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관련기사 12면〉

문 대통령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

"확진자 전국 확산 양상 뚜렷"
"범국가 총력체제 대응" 강조
"장기화 따른 자영업자 걱정"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결단해 주신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던 3차 유행 당시인 지난해 12월13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본격 휴가철을 맞이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3단계 일괄 상향 조치를 결정했다. 거리두기 3단계로 일괄 상향되면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면서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가 연장되고 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면서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생업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26일)부터 50대 접종에 들어가면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백신 예약시스템의 미흡한 부분도 신속하게 보완하고 있다. 8월에 예정된 40대 이하 예약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수습·경력기자 모집

"지역언론의 선봉장인 호남신문에서 재능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인원 : 수습·경력기자 0명
▶지 원 기 간 : 채용시까지
▶지 원 자 격 : 학력·나이제한 없음
▶전 형 방 법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
▶제 출 서 류 : 이력서(사진 부착)·자기소개서 각 1부
▶접 수 방 법 : 등기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ihonam@naver.com)
▶접수처 :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문의전화 : 062-229-6000)

호남신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공포만 남았다

소병철 의원 "순천 넘어 전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

순천만국제박람회 특별법이 2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소병철 의원 등이 축하현수막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발의 5개월 만에 순탄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8월 공포될 예정이다.

25일 순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정원산업의 발전과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서 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원박람회법)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원박람회법 통과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사후활용까지 아우르게 됨으로써, 행사를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생태도시 순천의 장기 미래 전략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정원박람회법이 순천을 넘어 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며 "이 법으로 박람회가 일회적 이벤트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고, 순천이 그 성공적 사례를 보임으로써 순천을 넘어 전남과 대한민국 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순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정원박람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정원박람회법을 발의한 뒤 5개월이 지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의 성안부터 각 상임위 심의 등 큰 역할을 수행했다.

또 학계및 국립수목원, 전라남도, 순천시 관계자 등 정원 분야 전문가들과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도 보탬이 됐다. 소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여야 32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를 끌어낸 점도 특별법 제정의 힘이 됐다.

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쳤으며, 소 의원은 출석해 정원박람회법의 필요성과 향후 순천과 전남을 넘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원박람회법은 재적 238명, 찬성 217명, 반대 3명, 기권 18명으로 통과됐다.

소병철 의원은 정원박람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직후 "여순사건특별법에 이어 정원박람회법 제정에 찬성한 여야 선배·동료 국회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여순법은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 정원박람회법은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생태도시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며 "오늘 제정된 법안을 바탕으로 향후 A1급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